



첫사랑의 죽음

그남자의 인생을 바꾸다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토요 무료상영작 '그레이트 뷰티'

영화 속 로마의 일상·풍경
건축물들 내용 못지않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 4층)은 올해부터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을 중심으로 상영하는 토요 무료상영작을 매주 갖는다.

영화관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영화제 작품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1년에 한 번 열리는 영화제의 한시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화제 작품을 생소하게 여겼던 관객들과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주에는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 스퀘어 섹션 상영작인 <그레이트 뷰티>가 14일 오후 1시30분에 무료로 상영된다.

영화는 첫사랑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다.

40여 년 전 소설 한 권을 끝으로 더 이상 책을 쓰지 못하는 젊은 로마 1%의 삶을 누리는 셀러브리티이다. 하지만 어떤 화려한 파티와 예술도 그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고, 65년째 생일파티가 지난 어느 날 첫사랑의 부고 소식을 들은 후 가장 아픈 다녔던 기억을 반추하기 시작한다.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 영화는 2014년 아카데미시상식, 영국아카데미시상식,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영화상을 휩쓸었다. 영화 속 로마의 일상과 풍경, 건축물들은 내용 못지않은 영상미를 자랑한다.

영화관들은 각 좌차 1시간 전부터 티켓박스에서 선착순(1인 1매)으로 좌석 지정을 받은 후, 상영 시작 15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나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시인 이시영 주장... 한국작가회 이사장 역임

시인 이시영(68·사진)이 자신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 시인이 11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따르면 그는 미국 하와이대와 버클리대 문학행사 초청을 받아 한국문학번역원에 항공료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지원을 신청한 네 사람 중 자신과 다른 문인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항공료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 역시 블랙리스트라는 걸 최근에 와서야 실감했다"고 적었다.

이 시인은 최근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할 것을 가리켜 '실로'라고 표현한 뒤 "반역원, 문화예술위, 출판문화진흥원도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기 소설가 김연수와 김애란이 미국 듀크대 초청 행사에 초청을 받고도 문체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의 비협조로 현지에 가지 못했다는 SBS 보도가 나왔다. 김연수와 김애란이 세월호 참사 규탄성명에 이름을 올리거나 이와 관련된 글을 쓴 것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가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제작된 '지역영화'를 대상으로 한 출품 공모를 진행한다.

전주국제영화제와 전북독립영화협회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출품공모는 지역영화의 발굴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극·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실험영화를 불문하고 상영시간 40분 이상의 장편 및 중편영화, 상영시간 40분 미만의 단편영화이다.

전북지역 기반 제작 지역영화 출품 공모

전주국제영화제, 장르 구분없이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접수

출품 자격은 2016년 11월 1일 이전에 개최된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되지 않은 작품으로, 전북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의 작품 또는 전북 지역에 주소지를 둔 대학 재학생의 작품에 한한다. 전북 지역에서 50% 이상 로케이션한 작품도 출품 가능하다.

출품작 접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6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oreanfilm@jiff.or.kr)로 제출하고, 작품은 전주국제영화제 서울사무소의

프로그램 팀 한국영화 담당자 앞으로 DVD 2매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공모작에 대한 심사는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전북독립영화협회 외부인사 각 1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맡아 진행하며, 선정작은 2월 27일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한국전쟁, 한국전쟁전쟁, 코리아시네마스퀘어, 익스팬디드 시네마 부문에 초청돼 상영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소리전당 무대감독들 수상 잇따라

박영모 음향감독, 무대음향협회 우수상

김동환 조명감독, 조명가협회 이사장상

송두영 조명감독, 조명가협회 전북지부상 수상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전성진)의 무대감독들이 잇달아 수상 소식을 전했다.

(사)무대음향협회는 매년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하는 우수상(이사장상)에 박영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무대운영팀장(42·음향감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팀장은 지난해 무대음향기술 직무교육의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사)한국조명가협회도 매년



박영모 감독



김동환 감독



송두영 감독

국내 공연분야 조명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이사장상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김동환 조명감독(31)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감독과 송 감독은 한국조명가협회의 지역발전 교류를 위해 전북지부의 창립 및 안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조명가협회 시상식은 22일 오후 8시 총무이사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 공연예술연습공간 정기대관 신청접수

(재)전주문화재단(이사장 김승수)은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의 정기대관(1/3) 신청접수를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은 지상 3층 269.97㎡ 규모의 공간으로 동산동(구)주민센터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대연습실 2개, 중연습실 2개, 탈의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 공연예술 연습공간으로 조성됐다.

시설은 음향·조명 시스템과 함께 충격을 흡수하는 바닥재와 방음설비가 완비되어 있어 전주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공연예술 연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피아노·드럼 등 악기를 구비하고 있어 대중음악 연습도 가능하다.

대관 시간은 오전(10~13시), 오후(14~17시), 야간(18~22시)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대관료는 대연습실 2만원, 중연습실 1만원이다.

이번 정기대관 선정은 신청 공연단체 중 순수 공연예술 연습 목적 및 20일 이상 대관을 신청한 단체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



다.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관계자는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은 뮤지컬, 오페라 등 대규모 연습뿐만 아니라 밴드, 성악 등 대중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많은 공연예술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jjcf.or.kr)와 아르코통합시스템(<http://bang.arko.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3-213-2016. /정해은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 열린갤러리' 이용자 공개모집

26일까지 박물관으로 방문 접수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시민 열린갤러리를 이용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들에게 박물관 내 전시공간을 지원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을 도모하고, 군산시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모집은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군산시민 및 군산 소재지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통 생활문화 작품 등 전통문화를 매개체로 한 콘텐츠와 박물관 이미지와 부합하고 군산을 알리는 주제를 무대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선정심사는 신청서, 개인 및 단체 소개서, 전시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내달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최소 20일에서 최대 25일 동안 박물관 열린갤러리 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타 전시 홍보물(리플렛, 배너, 포스터 등) 제작 및 언론 홍보, 관계자 무료 관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산시민 및 문화예술단체는 군산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와 소개서, 계획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오는 26일까지 박물관(454-7870)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산=문정근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준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13일>



▷쥐띠

48년생: 사람과의 화합하기에 좋은 날이 될 수 있겠다.
60년생: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니 지나친 적대감은 삼가라.
72년생: 타인의 원망을 살피지 말고 행동을 주의하라.
84년생: 지나치게 예민해질 수 있는 운이다. 마음을 잘 다스려라.



▷소띠

49년생: 건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1년생: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후반에는 결실을 맺으니 긍정적으로 진행하라.
73년생: 첫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되는 운이니 상의해서 결정하라.
85년생: 이성과 충돌할 일이 생기니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인정시켜라.



▷호랑이띠

50년생: 동기간과의 다툼에 주의하라.
62년생: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상대편과 불화가 예상되니 언쟁은 피하라.
86년생: 외부적으로 움직이면 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



▷토끼띠

51년생: 적대적이었던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
63년생: 시비가수따라 타인과의 관계에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운이다.
75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운이다.
87년생: 상대편과 의견이 맞지 않는 운이다.



▷용띠

52년생: 다른 사람을 위한 상황이 되게 만들어라.
64년생: 처음에는 불화하나 나중에는 화합하니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76년생: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운이다.
88년생: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주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뱀띠

53년생: 상대편이 나에게 결과 속이 다르다.
65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 나아가야 하는 시기.
7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함과 성실함이 더해져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가볍게 던진 말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니 언행에 주의하라.



▷말띠

54년생: 출타할 일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운이다.
66년생: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불만을 줄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78년생: 사고수와 질병수가 따르니 운전은 삼가는 것이 상책이다.
90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지출을 삼가라.



▷양띠

55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은 운.
67년생: 이성으로 인해 오해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언행에 주의해야 하겠다.
79년생: 약간의 구설이 따르니 자연스런게 오해가 풀리게 된다.
91년생: 금전운이 약하고 출타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기는 운.



▷원숭이띠

56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68년생: 외로운 마음이 드는 시기다.
80년생: 먼저 베풀면 베풀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이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밖으로 크게 추진하지 말고 안에서 작게 움직이면 좋다.
81년생: 기혼자에게는 부부불화가 생길지 모른다.
93년생: 추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관지에 유의하라.



▷개띠

46년생: 일찍 움직이면 얻을 수 있는 운이다. 오후 3시 넘어서는 운이 불리하다.
58년생: 물어온 만큼 나가는 운이니 욕심은 금물이다.
70년생: 큰 성과를 욕심내는 사람은 불리하니 주의하라.
82년생: 운전은 가끔씩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돼지띠

47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59년생: 지나친 일에 대한 구설수가 발생하는 운이니 센스 있게 넘겨라.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라.
83년생: 첫 사람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